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Part I GⅢ 승격

PartⅡ 승격 3년만에 한 단계 성장 대상경주 승격, 100년 역사상 처음 경마 시스템·경주마 등 해외진출 전략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의 국제경주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가 한국 경마 최초로 Part I 국제 그레이드 경주(GⅢ)로 승격됐다.

국제경마연맹(IFHA)과 산하 기관 국제경주분류위원회(IRPAC)는 경마 제도, 규모, 수준을 평가해, 세계 경마시행국(Part I~PartⅢ)과 대상경주(GⅠ~GⅢ)의 등급을 매겨 관리한다. 한국은 2004년 Part

Ⅲ 국가로 분류된 후 2016년 PartⅡ 국가로 승격했다. 100년의 한국 경마 역사상 대상경주 승격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마사회는 아시아를 넘어 프랑스, 영국, 홍콩,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경주로 2016년부터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를 시행하고 있다. 승격여부를 평가하는 최소기간이 3년 임을 감안할 때, 시행 3년 만에 Part I (GⅢ)로의 승격을 달성한 것은 최단기간 승격을 의미한다. 이번 승격으로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 입상마는 혈통서, 경매명부 등에 경주명칭과 함께 굵은 글씨체(Black Type)로 특별 표기된다. 경주 자체의 가치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입상 기회가 많은 한국

경주마의 가치 또한 동반 상승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경마 선진국 대열 합류를 상징하는 것으로 향후 선진 경마시스템, 경주마 등 인적·물적 자원의 해외진출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승격으로 한국 경마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수출 산업으로 전환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한국 경주실황 수출도 2014년 2개국에서 2018년 13개 국가로 확대됐다. 매년 15% 이상의 해외 매출 성장을 보이며 올해 연 매출액 724억 원을 돌파하는 등 그 가능성이 확인됐다. 진행 중

에 있는 한국 경주마의 해외 수출도 이번 승격으로 한층 더 탄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이번 국제 인증은 한국 말산업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수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23일 제10경주주 총상금 1억1000만 원을 걸고 코리아컵·스프린트 승격 기념경주를 시행했다. 올해 9월 8일에는 제4회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가 열리며, 두 경주의 총상금을 기존 17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해 개최될 예정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마사회 장학관, 8월5일까지 입주생 모집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장학관이 하반기 입주생을 모집한다. 보조금 10만 원에 월 입실료 15만 원이고 106명을 모집한다. 농업인 또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 이면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정원의 30%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등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 배정한다. 공정성을 위해 소득수준과 학업성적, 거주지와 학교의 거리를 평가해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일정 기준 초과, 거주지가 서울이면 입주가 제한된다. 동일성별로 2인1실이 원칙이다. 접수는 7월 20일부터 8월 5일 오후 6시까지다. 랫츠런재단 홈페이지(www.lrf.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 또는 우편접수해야 한다. 최종 결과는 8월 25일 발표하고, 입주는 8월 29일부터다. 문의 02-2199-9906/9902.

7월 5일부터 야간경마...경품도 푸짐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7월 5일부터 2개월 동안 금·토요일마다 마지막 경주를 기존 오후 6시에서 9시로 늦춘다. 이를 기념해 '야간경마 럭키셔머 페스티벌'도 진행한다.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서울경마 휴장기 8월 첫 주 제외) 매주 금·토요일 3개 경주 이상 마권구매자에게 경품 응모권을 배부하고, 일요일마다 추첨해 예어진, TV,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등을 증정한다. 오후 8시에서 8시 40분 사이에 출발하는 경주 마권을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매주 500명에게 커피, 아이스크림, 편의점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스크래치 행운권이 랜덤 자동 발행된다. 정용운 기자



경마장이 여름을 맞아 워터 슬라이드, 유아 풀장 등을 갖춘 워터파크로 변신한다. 한국마사회는 랫츠런파크에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저렴한 입장료로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랫츠런파크 제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저렴한 입장료로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랫츠런파크 제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여름철 경마장, 대형 워터파크로 변신

서울·제주·부산경남 줄줄이 개장 워터슬라이드·가족 풀장 등 운영

한국마사회가 여름을 맞아 경마장에 워터파크를 조성한다.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안전시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등으로 기존 워터파크와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입장료는 2000원에서 1만 원 사이로 저렴하다.

랫츠런파크 서울은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로내공원 포니랜드를 포니워터랜드

로 꾸민다. 7월 21일까지는 토·일요일만 운영하고 24일부터 주~일요일까지 주 5일 이용할 수 있다. 포니 마방, 윈도막, 트로이 목마 놀이터 등 기존 포니랜드 시설들과 더불어 약 33m의 초대형 워터슬라이드, 유아풀장, 가족 풀장 등이 운영된다. 오전 10시부터 폐장시간 5시 50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권은 5000원, 오후 2시부터 입장 가능한 오후권은 3000원이다. 30개월 미만 유아는 무료입장할 수 있다. 7월과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풀파티는 화려한 야간조명과 DJ

의 신나는 음악이 있는 버블 풀장에서 색다른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풀파티는 오후 4시부터 열리고 무료 음료 1잔이 포함된 입장권이 1만 원이다.

랫츠런파크 제주는 28일부터 말을 테마로 한 어린이 물놀이 시설인 '포니 워터파크'를 개장한다. 9월 1일까지 월·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금·토요일은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나머지 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워터 슬라이드, 대형 수영장, 유아 전용 풀장 등과 어린이 무료 스마체럼, 전기 순환열차 등의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다.

8월 3일부터 18일까지 한라산 천연암반수를 이용한 물총축제가 열려 워터캐논, 워터커파 등 시원한 물놀이가 다채이 공연, 거

리랜드 등이 펼쳐진다. 경마가 진행되는 금·토·일 어린이 입장료는 2000원, 수·목요일 3000원이다. 워터파크는 어린이 전용으로, 성인은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만 입장할 수 있으며 성인 입장료는 따로 없다.

랫츠런파크 부산경남은 '랫츠셔머! 워터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7월 6일부터 9월 1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터비랜드 광장에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한다. 25m 길이의 워터풀, 10m 높이의 에어바운스, 바닥분수 등과 함께 치어리딩, 태권무, 마술 등의 무대 공연도 펼쳐진다. 이용료는 오전권(10:00~13:50), 오후권(14:00~17:50) 각 3000원이며, 성인은 2000원 상당 경마장 입장권을 추가로 구매해 입장해야 한다. 정용운 기자



스포츠토토 이외의 베팅은 불법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도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가 불법스포츠도박 및 유사발매 행위 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토도 이외에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팅판이 유일하다. 이 외에 유사 사이트나 발매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스포츠토도는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판매금액을 제한하고, 건강한 판매환경과 레저문화 조성은 물론 다양한 건전화 활동과 캠페인, 그리고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스포츠도박 등 유사발매 사이트의 경우 높은 사행성으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갇아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 의무 또한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 지하자금 조성의 창구로도 이용되는 등 수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범죄 행위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안방강자 수원, 하락세 경남 잡는다” 71%

축구 승무패 23회차 K리그·J리그 조합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도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29일부터 30일까지 벌어지는 K리그 5경기와 일본 J리그 9경기 등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 토토 승무패 23회차 수원-경남(4경기)전에서 팬들의 71.45%가 안방 경기를 치르는 수원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양 팀의 무승부 예측은 18.74%로 나타났다. 경남의 승리는 9.81%가 예상했다.

순위가 거의 비슷한 팀들의 대결이다. 수원은 승점 19(승4무6패)로 8위에 올라있고, 승점 12(승6무9패)의 경남은 10위에 머물러 있다. 다만 최근 두 팀의 사정은 다르다. 먼저 수원은 7위 포항(승점 20점)과 승점 1점 차이를 기록하고 있고 5, 6위인 강원, 상주(승점 24점)와는 5점 차이가 난다. 향후 펼쳐질 경기들을 잘 이끌어 간다면 중상위권으로 도약이 가능한 수원이다. 수원은 23일 펼쳐진 전북 현대와 경기에서도 1-1로 비겼다.

반면 경남은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다. 최근 리그 12경기 무승(5무7패)의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 기간 경남은 경기당 0.9골에 불과한 평균 득점을 기록한 반면, 실점은

1.9점을 기록했다. 경남은 올 시즌 두 번밖에 이기지 못했다. 올해 두 팀의 첫 대결은 난타전 끝에 3-3으로 비겼으나 이번에는 수원이 안방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 팬들의 예상과 같이 수원이 우세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제주 유나이티드 원정에 나설 대구FC는 69.07%의 높은 승리 예상 지지를 받았다. 반면 제주의 승리 예상은 16.33%, 무승부는 14.60%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대구FC는 승점 28(승7무3패)로 4위에 올라있고, 제주는 승점 10(승4무11패)로 최하위인(12위)에 머물고 있다. 대구FC가 최근 FC서울에 1-2로 패하는 등 좋은 분위기는 아니나 제주의 경기력은 더욱 좋지 못하다. 최근 7경기에서 1승6패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제주는 최근 인천, 울산, 상주, 성남과의 경기에서 모두 패해 4연패 수렁에 빠졌다.

J리그는 가와사키 프론타레와 가시마 앤틀러스가 높은 투표율로 승리 가능성을 높였다. 74.46% 지지를 받은 가와사키는 30일 주빌로 이와타 원정에서도 선전한다는 의지다. 안방에서 산프레체 히로시마와 격돌할 가시마의 승리 예상은 67.90%로 나왔다.

골프팬 66% “고진영, 언더파 문제없다”

골프토토 스페셜 16회차 중간집계

골프 팬들이 29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에서 열린 'LPGA 월마트 NW 아칸소챔피언십'에서 고진영의 언더파 가능성을 높이 내다봤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도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28일 미국 아칸소에서 열리는 'LPGA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1라운드를 대상으로 한 골프토토 스페셜 16회차에서 전체 참가자의 66.10%가 1번 선수인 고진영의 언더파 활약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2번 브룩 헨더슨은 66.05%로 그 뒤를 이었고, 3번 이민지(65.19%)와 5번 유소연(61.09%), 4번 김세영(60.55%)이 비슷한 수준의 투표율을 선보였다. 6번 히타오카 나사가 54.19%로 뒤를 이었고, 언더파 확률이 가장 낮은 선수로는 7번 에이절 인(51.11%)이 선택됐다.

골프토토 스페셜 게임은 지정된 5명 혹은 7명의 프로골퍼의 1라운드 타수대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타수대는 5언더 이하, 3~4언더, 1~2언더, 0(이븐), 1~2오버, 3오버 이상 등 총 6개 구간으로 구



성되며 1라운드 최종 타수대를 모두 맞힌 사람에게는 해당 회차 배당률에다 베팅 금액을 곱한 만큼 적중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골프토토 스페셜 16차 게임은 28일 오후 7시30분 발매가 종료되고 1라운드가 모두 종료된 이후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